

국제 안전보건동향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7. 11. 7]

Vol.
438

<목 차>

- | | |
|---|----|
| 1. 각 이코노미(Gig Economy)와 근로자 안전 | 1 |
| 2. ILO, 산업안전보건 재해예방을 위한 세계적인 행동 (OSH-GAP) 프로그램에 관하여 | 3 |
| 3. 미국, 건설업 안전리더십 스킬 교육 모듈 개발 | 6 |
| 4. 터키가 직면한 산업안전보건 과제 | 9 |
| [별첨] 국외 단신 | 11 |



-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John Howard 원장은 모든 직 이코노미 근로는 상근 또는 임시, 온·오프라인과 어플을 통한 근로 등 형태가 다양하여 하나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안전보건 위험도 다양하다고 지적
- 일부에서는 직 이코노미 근로자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고 그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보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함
- 미국, 임시 고용근로자와 독립계약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 '05년 미국통계청 기준 임시 고용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4.1%를 점유하고 있으며, 독립계약자는 7.4%로 나타남
 - '16년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성인 8%가 '15년에 직 이코노미로 수입을 창출했고, 그 중 29%가 직 이코노미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기초 생활비로 사용
- 직 이코노미의 특성 상 일반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
 - 직 이코노미 근로자를 일반근로자와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잣대가 모호하지만,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경우 일반근로자가 받는 산재보상이나 최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등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 미국에서 유일하게 시애틀시(市)가 독립계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
 - 시애틀시는 독립계약자를 일반근로자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독립계약자가 해당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이에 따른 다양한 유권해석으로 법정 다툼도 예상
 - 하지만, 이러한 협상권이 단기적으로 급여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Garden, 시애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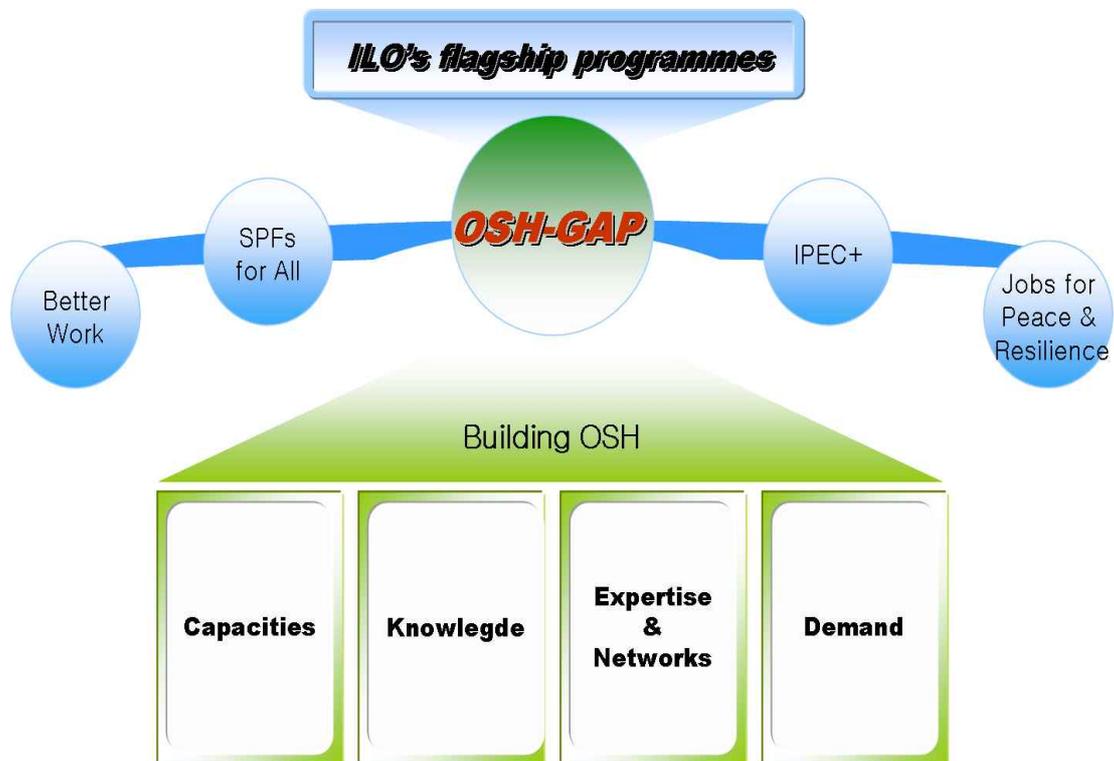
<시 사 점>

- ◇ 직 이코노미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유도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단기 또는 임시직을 늘리고 사회보장 서비스 미혜택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직 이코노미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련 근로자가 양질의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이들의 안전과 보건과 웰빙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예방활동 필요

- ILO는 전세계 차원의 협력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기존의 기술 프로젝트를 크게 5가지 주력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①더 나은 일자리 ②사회 보호를 위한 기반 ③OSH-GAP 프로그램
④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IPEC+) ⑤경제력 회복 및 안정성을 위한 직업

※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력 프로그램은 GAP-OSH(Global Action for Preven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임



□ 배경 및 필요성

- 매년 대규모 재난으로 사망하는 숫자 대비 작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망하는 근로자 수가 훨씬 많음
- OSH-GAP 프로그램을 통해 ILO 회원국 및 사회적 파트너 국가(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준 개선 요구 시 직접 대응하고 있음

□ 목적

-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문화를 증진
- 전 세계 사업장의 안전조건을 향상하여 근로자의 기본 권리 확보
-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 중점 분야

- 중·소규모 사업장 : 전체 사업장의 99% 이상 점유
- 위험 업종 : 건설업 및 농업
- 산업재해 취약 근로자 : 청년 근로자(15~24세),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 세계무역의 70% 이상 차지

□ 전략

- 총 4가지 산업안전보건 개선 영역(역량, 지식, 전문성/네트워크, 수요)으로 분류
- 모든 단계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협업 및 의견 조율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추진

□ 영역별 주요사업 및 대상국가

○ 역량강화 영역

- 산업안전보건 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 및 프로세스 개발(Global)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정(안) 마련을 위한 지침·도구 설계(Global)
- 건설부문 산업안전보건 교육 확대 시범 운영(Cambodia)
- 안전보건 직업교육과 청년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Myanmar, Vietnam)

○ 지식구축 영역

- 글로벌 공급망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방법론과 도구 개발 및 시범 운영(Colombia, Indonesia, Madagascar)
- 국가 안전보건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Global)
 - * OSH National Performance Index
- 국가 산재 기록 및 보고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뢰수준 지표** 개발(Global)
 - ** Confidence Level Index

○ 전문성/네트워크 영역

-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조직, 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Global)
- 지역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현황 및 개요(Regional)
- 예방문화를 통한 청년 근로자/사업주/기업가 네트워크 증진(Global)
- G20 안전보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리 및 운영지원(Global)

○ 주요 창출

- SafeYouth@Work 및 Youth4OSH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정보제공(Global and Multi-country)
 - 청년 근로자 안전보건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지식-태도-행동”^{*} 수준 조사(Global)
- * Knowledge-Attitude-Behaviour (KAB)



출처: ILO 웹사이트³⁾

< 시사점 >

◇ ILO 프로그램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의견 조율 및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협력 요구 시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 필요

3) 출처 :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how-the-ilo-works/WCMS_495278/lang-en/index.htm

관리자 및 현장감독자의 안전리더십 스킬의 중요성이 대두, 미국건설업연구교육센터 (CPWR), 건설업 필수 교육 이수 시 안전리더십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모듈 개발⁴⁾

□ 서론

- 사업주, 건설 공사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의 안전리더십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 및 예방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추세
- 작업반장과 현장감독자가 작업장에서 안전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강조
 - ☞ 기업의 안전 대책과 절차 등을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인물임

□ 안전 풍토(Safety Climate)

- 안전 풍토란 현장에서 안전 대책, 절차 및 안전한 작업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근로자 인식 정도를 의미함
 - 작업반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올바른 안전 롤 모델’이 되거나 안전한 작업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 현장 안전 풍토 구성에 핵심 역할을 함
-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 풍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리더십 스킬을 보유한 관리자가 필요

□ 안전리더십 스킬 향상 교육훈련, FSL

-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작업장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는 건설회사는 대개 안전 리더십 스킬 개발에 중요성을 둠
 - ☞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리더십 스킬 교육훈련 부재

4) 출처 : <http://www.ehstoday.com/construction/construction-safety-does-safety-leadership-training-make-sense-your-business>

- 미국건설업연구교육센터⁵⁾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리더십 스킬 교육훈련 모듈인 기초안전리더십(**Foundations for Safety Leadership, FSL**)을 개발·보급
 - 안전리더십 스킬 교육훈련 개발 배경은 아래와 같음
 -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건설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현장감독자를 처음 채용 시 30시간의 OSHA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음
 - 2013년, 건설업 워크숍에서 건설업 안전 풍토 구축을 위한 8가지 주요 선행지표가 수립되었고 그 중 하나가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이었음
- 기초안전리더십(FSL) 모듈은 올해 초 OSHA의 승인을 받았으며 트레이너, 건설업 근로자, 안전보건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컨설턴트,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시간/30시간 분량의 OSHA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FSL 모듈 개발에는 미국건설업연구교육센터,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덴버 캠퍼스, 건설업 전문가 등이 종합과정개발팀을 이루어 참여
 - 종합과정개발팀은 안전 리더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안전리더십 스킬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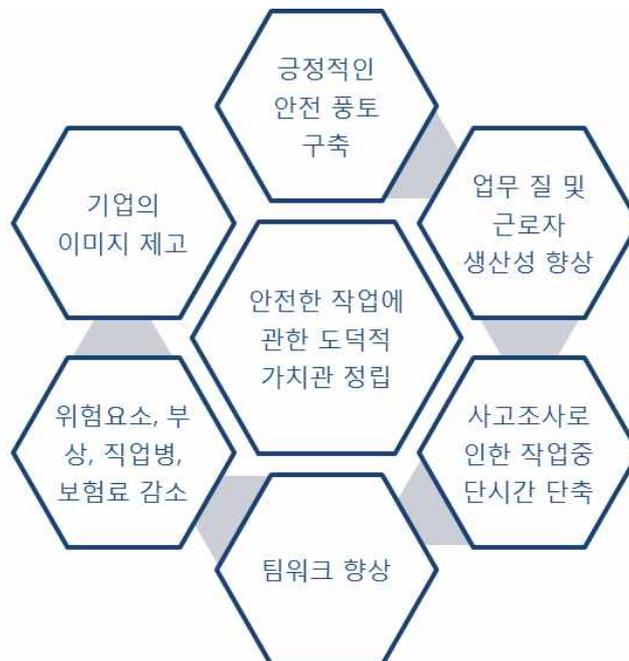
다섯 가지 안전리더십 스킬	
리더십 기술	올바른 리더십 행동
사례를 통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핵심 가치 공유로 안전 문화 구축 · 팀원과 안전 비전을 공유 ·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보여주기 · 말한 것을 실천 · 모범이 됨
팀원 참여 독려 및 권리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책 제시 - 아차사고 보고 - 필요한 경우 작업 중지

5) CPWR, The Center for Construc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to Protect Workers' Rights에서 변경)

의견 경청하기 및 3방향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 의견을 경청 · 들은 메시지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게 함
티칭, 코칭, 피드백을 통한 팀 구성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공손한 자세로 가르침(티칭 및 코칭) · 배우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바로 잡거나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지켜봄 · FIST 원리를 활용 : Facts, Impact, Suggestions, Timely
팀원이 잘 한 일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관련하여 팀원이 일을 잘한 경우는 개인적 또는 공개적으로 인정

□ 기대 효과

- 작업반장 및 현장감독이 상기 안전리더십 스킬을 습득한 경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시사점>

◇ 안전리더십 스킬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

☞ 국내에서도 안전리더십 교육 개발 및 적용으로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은 터키, G20 회원국이나 여전히 높은 산재사망율과 개선되지 않는 안전보건 수준으로 정부 무능력함 비판 직면⁶⁾

□ 요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분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터키는 2012년, 여당인 AK의 집권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
 - 1980년 이후 노동집약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문화 의식 수준이 낮은 실정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일, 복구비용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뿐 만 아니라 부상자의 경력 단절 등 간접비용으로 2015년까지 연간 약 17억 7,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 2012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용을 대비 사고사망재해율이 감소하였으나 통계법 변경으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
 - 터키사회보장기관(Social Security Institution)은 100만 근로시간 당 부상자 수는 2002년 5.56명에서 2012년 2.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⁷⁾는 100시간당 2002년 0.82에서 2012년 0.32로 하락
 - 산재사고 백인율은 1971년 11%에서 2012년 0.1%로 감소
 - 2012년 이후 터키정부는 새로운 집계 방식인 유럽연합 표준 산업재해 통계법 (European Statistics on Accidents at Work) 채택
 - 새로운 통계법에 의하면 연간 산업재해 사고건수는 2012년 75,000건에서 2013년 191,000건으로 증가하며 이전과 달리 대폭 상승

6) <https://www.dailysabah.com/op-ed/2017/10/25/turkeys-challenge-of-occupational-safety>

7) lost workdays

□ 현시점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 지난 16년간 터키는 사회·경제 문제에만 집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은 낮았음
 -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사업주, 근로자, 비영리 단체 등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
 - 기술,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필요



※ 보호 장비 없이 복구 작업 중인 지붕 위를 걷고 있는 근로자(터키, 이스탄불 10월 20일 촬영)

< 시사점 >

- ◇ 터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가 산업안전수준에도 큰 변화가 감지
 - 새로운 통계법 채택으로 산재사고 집계 방식의 신뢰도가 확보되고 있으며, 산재 감소를 위한 정책과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대비 사고사망자율이 OECD 국가 내에서 높은 편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개발과 현장 관계자의 예방문화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필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차기 OSHA 청장 후보로 FedEx 부사장 지명⁸⁾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FedEx社의 스콧 무그노(Scott Mugno), 안전, 지속가능성 및 차량 유지보수 담당 부사장을 노동부 사무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SHA 청장)로 지명



○ 무그노 부사장은 최근 백악관에서 추진한 ‘안전 보건 프로그램 및 예방문화 개발, 홍보 및 촉진’ 프로젝트를 맡음

- 주요 경력

- 1994년 8월 ~ 2000년 1월 FedEx 선임 변호사
- 2000년 2월 ~ 2011년 12월 FedEx 기업 안전·보건 및 화재 예방 이사
- 2012년 1월 ~ 현재 FedEx 안전, 지속가능성 및 차량 유지보수 부문 부사장
- 미국트럭운송협회⁹⁾ 회원
- 미국운송조사연구원¹⁰⁾ 연구 자문위원회 위원장

○ Patty Murray 미 상원의원은 10월 3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근로자 보다 기업 중심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무그노 부사장은 대기업에서의 업무 경력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근로자 중심의 운영 방향으로 OSHA를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 (052-7030-746)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8) 출처 : <http://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16333-president-trump-nominates-scott-mugno-to-head-osha>

9)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committees

10) Americ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